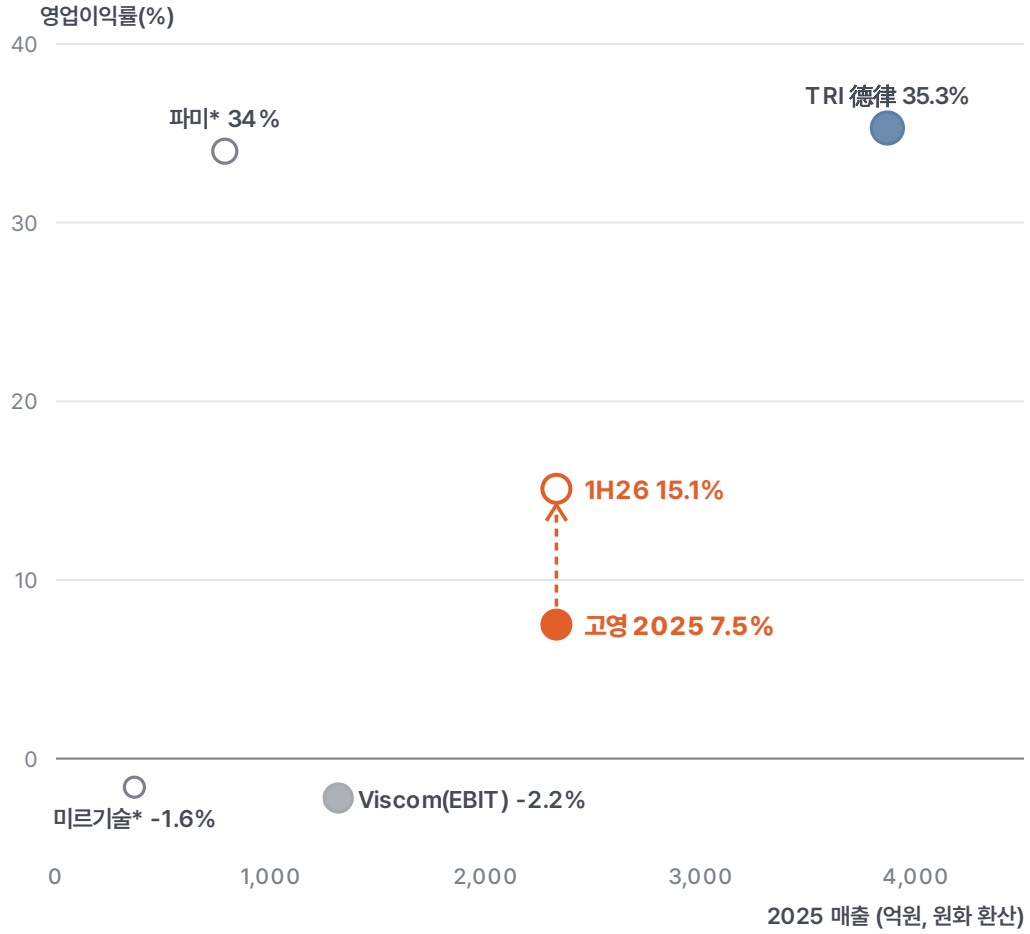
매출은 상위권이지만 이익률은 대만 TRI의 5분의 1: 고영의 숙제는 '수익성'이다



같은 기준(영업이익률)으로 비교한 회사 2025 결산

회사	시장	매출	영업이익률	증가율
고영테크놀러지	KOSDAQ	2,326억	**7.5%**	+14.9%
Test Research(TRI)	대만	3,865억	35.3%	+33.2%
Viscom	독일	1,312억	-2.2% (EBIT)	-2.8%
파미*	한국·비상장	785억	약 34%	+1.6%
미르기술*	한국·비상장	364억 (별도)	-1.6%	-9.5%

참고: 영업이익률을 같은 기준으로 구하지 못한 회사 그래프 제외

회사	시장	매출	공개된 이익 지표	증가율
ViTrox	말레이시아	2,800억	세전이익률 21.0%	+52.7%
矩子科技(Jutze)	중국	1,531억	순이익률 11.6%	+16.8%

격차가 생기는 곳 (추정) 매출총이익률은 2025년 분기 기준 고영 61~70%, TRI 56.7~60.6%로 고영이 낮지 않음 → 차이는 판관비 쪽에서 생긴 것으로 보임. 가능한 원인은 연구개발비(매출의 약 15%)·해외 거점 운영비·의료로봇 등 신사업 투자. 두 회사의 비용 항목별 비교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는 없음

※ 2025 결산, 연결, 2025 평균환율로 원화 환산. Viscom은 EBIT 마진. *파미·미르기술은 포털 집계(외감, 미르기술은 별도)로 신뢰도가 낮아 빈 원으로 표시. ViTrox는 공시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 항목이 없고, Jutze는 공개 요약에 영업이익이 없어 그래프에서 제외. Nordson ATS·Omron·Saki는 검사장비 단독 수치 미공시. '5분의 1' = 7.5 ÷ 35.3 = 0.21.

자료: 고영 IR 재무현황·IR 발표자료(2026.8.26), 공상시보·중국시보(2026.1), StockAnalysis·HiStock(TRI), ViTrox 4Q25 보고서, Viscom FY2025(2026.3.31), 同花顺(2026.4.25), 나이스비즈인포·캐치(파미), 사람인·캐치(미르기술)

성장 엔진은 다섯 개: AI 서버가 이끌고, 반도체·SW·우주항공·의료로봇이 뒤를 받친다

엔진마다 성숙도가 다르다: 이미 매출을 내는 것과 아직 수주·인허가 단계인 것을 나눠 봐야 한다

	성장 동력	근거 (기준 시점, 연결)	단계 진입→수주→매출→이익
①	**AI 서버용 기판 검사** 주력 SPI·AOI	서버 비중 25%(2Q25) → **38%(2Q26)**, 서버 매출 +160%. 북미 고객과 340억 공급계약(2025.12.30 회사 발표, 2024 매출의 약 17%, 2026년 말까지 매출 인식)	■■■■ 이익 견인 중
②	**반도체 패키징·AI 메모리 검사**	광모듈 고객의 반도체 검사장비 주문 증가(1Q26). 국내 메모리사로부터 **SOCAMM2 검사장비 첫 수주**(2026.6.9) → 2H26 공급 예정	■■□□ 수주 → 매출 전환 초기
③	**AI 스마트팩토리 SW** 회사 표현 Physical AI	분기 매출 **100억 첫 돌파**(2Q26, 매출의 약 12%). 1Q26 81억(+46%). 구독·유지보수 등 반복 매출 비중과 수익성은 미공개	■■■□ 매출 기여 중 · 수익성 미공개
④	**우주항공·휴머노이드·전장**	스페이스X 위성 제조공정에 검사 솔루션 공급(2026.6). 전장은 2025 매출의 33%, 4Q25 +49.5%	■■□□ 공급망 진입
⑤	**뇌수술 로봇 KYMERO**	美·日 인허가 완료, 中 신청(2026.4). 누적 16대·수술 1,081건. 연초 목표 20대+ → 10대 초중반으로 하향, 1H26 출하 4대	■■□□ 초기 상용화 (지연)
+	**여주 제2생산센터 증축**	294.39억(자기자본의 8.8%), 2026.8~2027.8, 보유 자금. AI 데이터센터·반도체 고객 수요 대응, 의료로봇 생산 기반	투자 진행 중

해석 ①·③은 이미 매출에 기여하고, ②·④는 새 고객을 막 확보했으며, ⑤는 아직 '미래 옵션'. 성숙도가 서로 달라 한 곳이 주춤해도 다른 곳이 받칠 수 있는 구조

자료: 고영 2Q26 실적발표(2026.7.28)·IR 발표자료(2026.8.26), 삼성증권(2026.4.24), 한국경제(2025.12.30), 전자신문(2026.6.9), 인포스탁데일리(한국투자, 2026.7.21), 딜사이트(2026.6), 이데일리(2026.8.6), 데일리팜(2026.7.31), 뉴스프라임(2026.4.24)